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안토니오스 대수사 / 1월 17일

루가 제12주일

성 바울로 테베의 수사

제5조 /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스소스탐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 골로사이 3,4-12 / 봉독서 362
- 복음경 : 루가 17,12-19 / 130, B 8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뵤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모두가 다 성체성혈성사를 영해야만 합니까?”

한번은 성인께 “모두가 다 성체성혈성사를 영해야만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인께서는 답변하시길 “주님께서 «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단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나요? 계속되는 기도에 ‘우리와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영적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체성혈성사 없이,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매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당에 와서 모든 것

인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잃고 안디도로에만 머무를 것입니까?

만약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당신을 초청하여 선물을 주려고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뒤돌아서면서 “나는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희생하시는 순간, 당신은 주님께 다가오지 않고 등을 보이고 돌아서서 다른 이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출현

“주여, 주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에 대한 경배가 나타나셨으니, 아버지의 소리가 주를 증거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였고, 성령도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 이 말씀을 확인하셨도다. 하느님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밝히신 그리스도여, 주께 영화로다.”(신현 축일 찬양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세례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진리의 영적 예배 대상이신 하느님께 경배하도록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실감하도록 드러나셨다.

이에 대하여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기적을 보이신 성 스피리돈에게서 성삼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제1차 세계공의회에서 이단자 아리오스의 궤변과 그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자 성인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 한 장을 손에 드시고 입감을 세계 부셨다. 그러자 벽돌에 불이 붙고 꺼지자 물이 흐르고, 잠시 후에 흙만 남게 되었다. 벽돌은 세 가지 요소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고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세 얼굴과 세 인격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성삼위에 대한 진리는 사람들의 사고 능력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그렇다고 우리 믿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생각의 한계에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그저 존경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뿐이다.

성삼위에 대해 밤낮으로 열중하던 한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다. 하루는 하늘이 청명한 저녁 한때 성삼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골몰했던 수도원장은 수도원 밖으로 나와 밤의 고요함을 만끽하며 걸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하며 기도하였다. 반 시간 정도 걷다보니 어느새 수도원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되었고 양 무리 한 떼를 만나게 되었다. 양 무리를 보면서 “수도원 가까이 양 무리가 떼 지어 있는데 내가 왜 몰랐

던가?”하며 이상히 생각하였다. 그때 양 무리를 이끄는 목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을 쳐들고 하늘 이곳저곳을 가리킨 후에 몸을 숙이고 땅에다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수도원장은 그에게 다가가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며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이 밤중에 뭐하고 있는 것이요?” “아! 신부님, 저는 지금 별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세고 있는 별의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을 세고 있지요. 다 셀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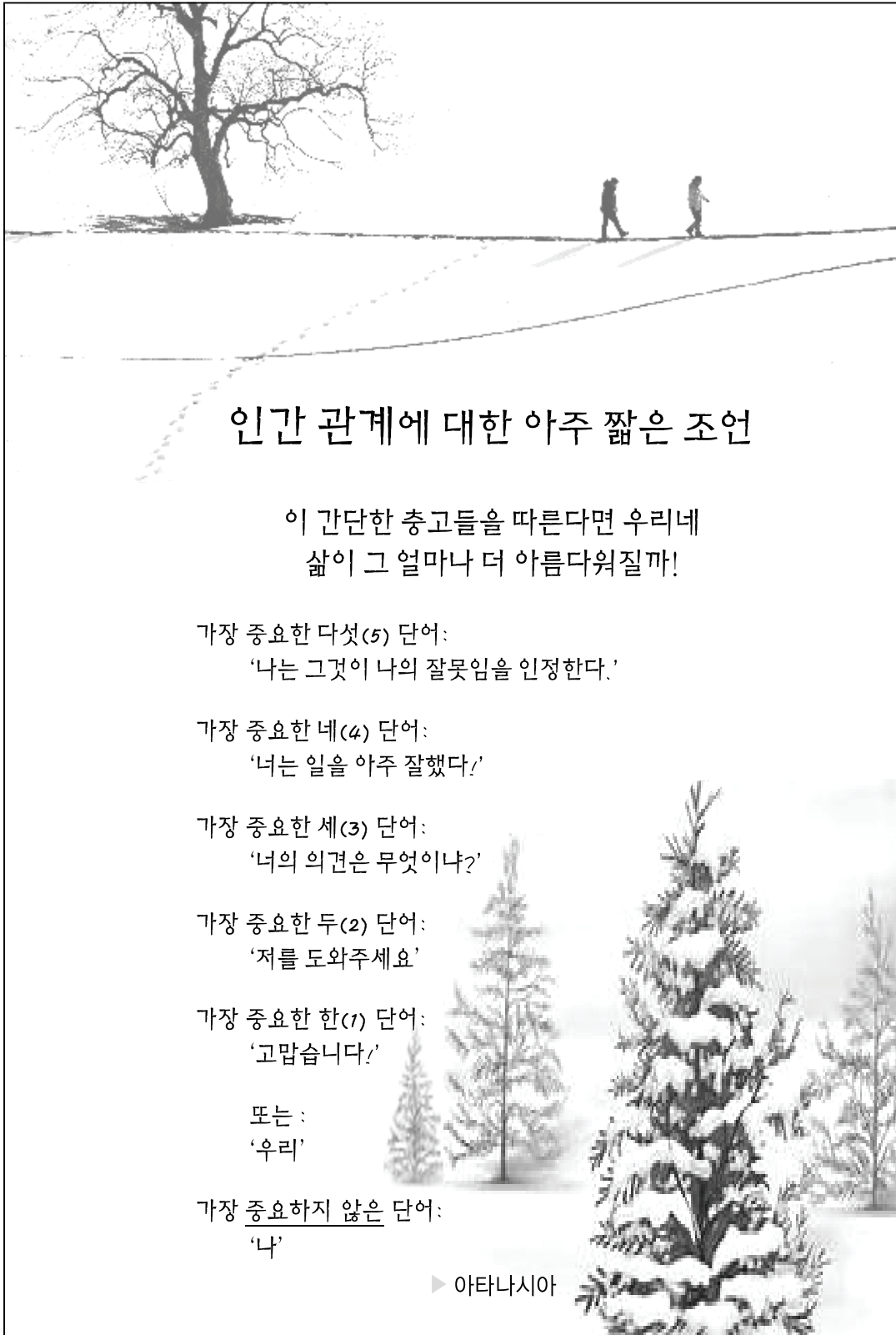
“아니 별을 세고 있단 말이요? 이 수많은 별을 어떻게 다 셀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는 신부님도 하느님의 진리를 세며 찾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목자와 양 떼들이 갑자기 그의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을 본 수도원장은 겸손하게 머리를 깊이 숙이고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사서 고생했어.…… 사서 고생했어.”하며 탄식하였다.

하느님의 진리들은 연구하고 생각해서 찾고 세지 않는다. 다만 밝은 정신과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드러날 뿐이다. 그리고 만약 성서의 한 구절을 해석하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단들과 같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삼위에 대한 경배는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기초가 되고 받침이 되는 교회 교부들의 올바른 전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인간 관계에 대한 아주 짧은 조언

이 간단한 충고들을 따른다면 우리네
삶이 그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가장 중요한 다섯(5) 단어:

‘나는 그것이 나의 잘못임을 인정한다.’

가장 중요한 네(4) 단어:

‘너는 일을 아주 잘했다!’

가장 중요한 세(3) 단어: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두(2) 단어:

‘저를 도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한(1) 단어:

‘고맙습니다!’

또는 :

‘우리’

가장 중요하지 않은 단어:

‘나’

▶ 아타나시아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월 1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주셔서 우리들을 오래도록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신자총회

서울·인천·전주·춘천 성당 신자총회가 2017년 1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여하여 2016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17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정 성수식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해를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 성수식을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월 17일(화) ▷ 성 안토니오스 대수사 축일
- 1월 18일(수) ▷ 성 아타나시오스와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축일
- 1월 21일(토) ▷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사 축일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